



제6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2016. 11. 29.

금오공과대학교
[재정위원회]

목 차

I. 제6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1
II. 첨부자료	9
1. 심의 안건	11
1) 2016학년도 제2차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안)	13
2) 2017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별첨	
2. 회의녹취록 전문	23

제6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제6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금오공과대학교

일 시 제6회 재정위원회 임시회<2016년11월29일(화) 개회10시30분, 산회12시30분>

장 소 금오공과대학교 중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학년도 제2차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심의
2. 2017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심의

부의된 안건	의결상황
2016학년도 제2차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원안대로 승인(전원찬성)
2017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원안대로 승인(전원찬성)

□ 2016년도 제6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 주요내용

일 자	회 의 내 용										
제6회 임시회 '16.11.29. (화)	1. 재정위원회 제6회 임시회 개의 및 위원 소개										
	2. 안전심의결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심 의 안 건</th> <th style="text-align: center;">심 의 결 과</th> </tr> </thead> <tbody> <tr> <td>2016학년도 제2차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안)</td> <td>원안 가결(전원찬성)</td> </tr> <tr> <td>2017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안)</td> <td>원안 가결(전원찬성)</td> </tr> </tbody> </table>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2016학년도 제2차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원안 가결(전원찬성)	2017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원안 가결(전원찬성)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2016학년도 제2차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원안 가결(전원찬성)									
	2017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원안 가결(전원찬성)									
	가) 주요내용										
	○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 총 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예 산 액</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당초(A)</th> <th style="text-align: center;">추경(B)</th> <th style="text-align: center;">증감액(B-A)</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67,553,354</td> <td style="text-align: center;">73,457,258</td> <td style="text-align: center;">5,903,904</td> <td> - 추가예산(730,844천원) - 성립 전 예산(5,459,269천원) - 예산감액조정(△286,209천원) </td> </tr> </tbody> </table>	예 산 액			비 고	당초(A)	추경(B)	증감액(B-A)	67,553,354	73,457,258	5,903,904
예 산 액			비 고								
당초(A)	추경(B)	증감액(B-A)									
67,553,354	73,457,258	5,903,904	- 추가예산(730,844천원) - 성립 전 예산(5,459,269천원) - 예산감액조정(△286,209천원)								
- 회비 수입의 증가분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 - 기타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증가분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 - 공공요금, 위탁용역료, 강사료, 장학금 등 필수예산 부족분 세출예산 반영											
※ 회의자료 중 기획협력처의 삼성전자SW사업 전용예산 오기 수정반영 [자산취득비(73,352천원), 업무추진비(2,452천원) 과목명 정정]											
○ 2017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심의											
- 대학현황, 재정운영 여건, 2016~2020년도 재정운용계획, 단년도 예산과 연계 전략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											
나) 간서인 3명 호선 : 학생처장, 정연구 위원, 이정희 위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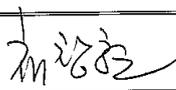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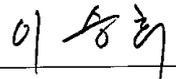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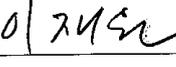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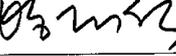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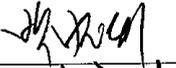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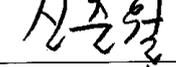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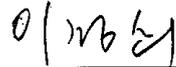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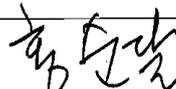
□ 회의록 서명부

연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서 명	비고
1	전자공학부	교 수	채 창 현		위원장
2	기획협력처	기획협력처장	이 승 희		부위원장
3	교 무 처	교무처장	이 재 원		
4	학 생 처	학생처장	방 대 석		
5	사 무 국	사무국장	박 용 태		
6	학 생 처	학생과장	신 춘 월		
7	교 수 회	부회장	정 언 구		
8	교양교직과정부	교 수	최 낙 렬		
9	경영학과	교 수	구 정 호		
10	도 서 관	직 원	손 창 식		
11	정보전산원	직 원	이 정 희		
12	기계시스템공학과	재학생	서 명 성		
13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유 병 창		
14	총동창회	사무국장	장 세 광		
15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계사	홍 순 달		
간사	사 무 국	재무과장	배 효 근		

□ 위원 참석부

2016년도 제6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위원 참석부

2016. 11. 29.(화)

연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서 명	비 고
1	전자공학부	교 수	채 창 현		
2	기획협력처	기획협력처장	이 승 희		
3	교 무 처	교무처장	이 재 원		
4	학 생 처	학생처장	방 대 석		
5	사 무 국	사무국장	박 명 태		
6	학 생 처	학생과장	신 춘 월		
7	교 수 회	부회장	정 연 구		
8	교양교직과정부	교 수	최 낙 렬	.	
9	경영학과	교 수	구 정 호		
10	도 서 관	직 원	손 창 식	.	
11	정보전산원	직 원	이 정 희		
12	고분자공학과	재학생	서 명 성	,	
13	건축학과	재학생	유 병 창	,	
14	총동창회	사무국장	장 세 광	.	
15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계사	홍 순 달		
간사	사 무 국	재무과장	배 효 근		

<첨부자료목록>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심의 안건	2016학년도 제2차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원안대로 승인
	2017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원안대로 승인
회의 녹취록 전문	제6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녹취록	

<첨부자료>

1. 심의 안건

**2016년도 제2차
대학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 11. 29.

금 오 공 과 대 학 교
[재 무 과]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I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 회비수입의 증가분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
- 기타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증가분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
- 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 부족분 계상
- 당초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예산 파악 후 반영

II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예산 총괄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			비 고
당초예산 (A)	추경예산 (B)	증감액 (B-A)	
67,553,354	73,457,258	5,903,904	□ 금차 추가예산(730,844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비수입(수업료) 증가 분 : 291,000천원 -공공요금 부족분 편성 : 114,025천원 -위탁용역료 부족분 편성 : 77,000천원 -강사료 부족분 편성 : 79,975천원 -대학원 장학금 편성 : 20,000천원 ○ 산학협력단회계 전입금 : 20,000천원 -kit융합기술원 단위연구소 사업 편성 ○ 발전기금회계 전입금 : 110,000천원 -통학버스 차량임차료 부족분 편성 ○ 특성화사업단 국가지원금 : 309,844천원 □ 성립 전 예산(6차~18차) : 5,459,269천원 □ 기타예산조정(△286,209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원금 계수조정 : △86,209천원 ○ 수입대체예산조정(학생식당) : △200,000천원

※ 필수경비 외 부서별 부족 예산은 세출 예산 이전용을 통하여 조정

□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 주요내용

○ 추가예산 편성 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비고
			당초	증감	최종	
대학원	장학금	외국인장학금 부족분	865,757	20,000	885,757	증액
교무처	강의료	강의료 등 부족분	658,240	79,975	738,215	증액
학생처	차량임차료	대구통학버스 임차료	804,150	110,000	914,150	증액
사무국 (시설)	공공요금	전기요금 등	381,041	114,025	495,066	증액
	위탁용역사업	위탁용역료(청소·경비 용역료 등)	1,102,604	77,000	1,179,604	증액
kit창의교육원	특성화사업 지원금	융합형 프로그메카트로닉스 인력 양성사업	0	309,844	309,844	증액
연구본부	kit융합기술원운영	연구소활동지원비 부족분	127,254	20,000	147,254	증액
계			3,939,046	730,844	4,669,890	

○ 성립전 예산 편성 내역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성립전 예산 내역	예산액			비고
			당초	증감	최종	
6차	평생교육원	◦평생교육특화프로그램 보조금	0	4,000	4,000	구미시
		◦수강료 증액 분 반영	371,000	22,900	393,900	수입대체
7차	사무국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0	854,000	854,000	국가지원금
8차	사무국	◦'16년도 국립대학 조교연구성과급	0	17,784	17,784	국가지원금
9차	입학관리본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0	230,000	230,000	국가보조금
10차	K-RC교육원	◦K-RC교육원 추가세입액	3,226,598	279,369	3,505,967	수입대체
		◦최경과정 추가세입액	203,640	50,010	253,650	수입대체
11차	기획협력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0	83,800	83,800	국가지원금
12차	입학관리본부	◦고교교육 정상화 공동사업비	0	26,000	26,000	국가지원금
13차	교무처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1,310,779	784,802	2,095,581	국가지원금
14차	kit창의교육원	◦3차년도 대학특성화 사업비	230,911	1,638,404	1,869,315	국가지원금
15차	기획협력처	◦'16년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0	521,000	521,000	국가지원금
16차	학생처	◦국가근로장학금(2차)	459,900	567,200	1,027,100	한국장학재단
17차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중심대학 보조금	0	180,000	180,000	국고보조금
18차	사무국(시설)	◦산학창조기술관 구미시 보조금	0	200,000	200,000	구미시보조금
계			5,802,828	5,459,269	11,262,097	

※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 제18조 관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제19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 기타 예산조정 사항(△286,209천원)

- 국가지원금 예산 조정 : 86,209천원 감액 [별첨]자료 참고
- 수입대체부서 예산조정 및 편성사항 : 200,000천원 감액 [별첨]자료 참고

○ 일반예산 이·전용 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목	세 목	예산이전용			비 고
				당초액 (A)	증감액 (B)	최종액 (A+B)	
대학원	대학원 기본사업			141,790	0	141,790	
				141,790	0	141,790	
		장학금	그 밖의 장학금	127,200	8,000	135,200	
		학생활동지원비	학생활동지원비	8,000	△8,000	0	
		일반수용비		6,590	0	6,590	
			소모품비	3,390	2,800	6,190	
	도서인쇄비	3,200	△2,800	400			
교무처	교무처 기본사업			125,120	3,000	128,120	
				115,120	△2,000	113,120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행사경비	29,700	△5,000	24,700	
		일반수용비	소모품비	32,800	△5,000	27,800	
		수선유지비	기계장치수선유지비	41,000	5,000	46,000	
		업무추진비	회의비	11,620	3,000	14,620	
		총장후보선출	업무추진비	10,000	5,000	15,000	
학생처	학생처 기본사업			125,206	0	125,206	
				123,706	580	124,286	
		유형자산취득비	기계장치구입비	0	580	580	
		지급보험료	지급보험료	37,000	△3,255	33,745	
		일반수용비	소모품비	86,706	3,255	89,961	
학생의료공제회운영	일반수용비	1,500	△580	920			
기획협력처	기획협력처 기본사업			370,040	△33,600	336,440	
				270,500	45,300	315,800	
		일반수용비		259,700	51,100	310,800	
				8,400	△1,000	7,400	
				250,000	52,500	302,500	
				1,300	△400	900	
		공공요금및각종세금	통신비	10,800	△5,800	5,000	
	대외재정지원사업	회의및위원회수당	16,000	△7,000	9,000		
	K-MOOC 사업		50,000	△50,000	0		
		학생활동지원비	학생활동지원비	10,000	△10,000	0	
		여비교통비	국내여비	1,200	△1,200	0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38,800	△38,800	0	
		정책자문단운영	회의및위원회수당	4,400	△2,000	2,400	
	학부평가	회의및위원회수당	3,000	△1,000	2,000		
	4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		5,600	△2,700	2,900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1,000	△200	800	
		업무추진비	회의비	4,600	△2,500	2,100	
		대학평가인증요청		15,240	△10,900	4,340	
			5,000	△5,000	0		
	일반수용비			4,200	△1,900	2,300	
	1,200		1,100	2,300			

부서명	사업명	목	세 목	예산이전용			비 고
				당초액 (A)	증감액 (B)	최종액 (A+B)	
	명예홍보대사 선정	업무추진비	지급수수료	3,000	△3,000	0	
			회의비	6,040	△4,000	2,040	
			행사경비	5,040	△3,000	2,040	
			행사경비	1,000	△1,000	0	
	자랑스러운 금요일 선정	업무추진비	그 밖의 일반행정경비	2,500	△2,500	0	
			회의 및 위원회 수당	1,500	△1,500	0	
			회의비	1,000	△1,000	0	
			일반수용비	2,800	△2,800	0	
	삼성전자교육 SW사업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1,800	△1,800	0	
			회의비	1,000	△1,000	0	
				94,000	0	94,000	
			재료비	25,000	△6,804	18,196	
	사무국	사무국 기본사업	자산취득비	65,000	8,352	73,352	
업무추진비			4,000	△1,548	2,452		
부담금			347,818	20,000	367,818		
여비교통비			76,056	28,500	104,556		
직장,직원협의회	업무추진비	반환금	100,000	27,750	127,750		
		일반수용비	20,700	0	20,700		
		소모품비	4,460	4,000	8,460		
		행사경비	16,240	△4,000	12,240		
영덕수련원운영	업무추진비	대학회계직원등 인건비	93,178	△14,000	79,178		
		대학회계직원 인건비	30,000	△9,328	20,672		
		일반수용비	23,678	△238	23,440		
		유형자산취득비	39,500	△4,434	35,066		
사무국(시설)	시설지원 기본사업		1,147,446	16,000	1,163,446		
			1,147,446	16,000	1,163,446		
		일반수용비	191,880	20,000	211,880		
		지급보험료	32,500	△10,000	22,500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495,066	16,000	511,066		
		건설비		428,000	△10,000	418,000	
			설계비	50,000	△30,000	20,000	
			시설비	290,000	40,000	330,000	
시설부대비	88,000	△20,000	68,000				
입학관리본부	입학전형		54,520	△10,000	44,520		
			54,520	△10,000	44,520		
		그 밖의 일반행정경비	11,100	△500	10,600		
		일반수용비	소모품비	2,700	800	3,500	
			지급임차료	6,600	2,620	9,220	
		여비교통비	24,120	△15,140	8,980		

부서명	사업명	목	세 목	예산이전용			비 고
				당초액 (A)	증감액 (B)	최종액 (A+B)	
		무형자산취득비	교육소프트웨어	10,000	△10,000	0	
		학생활동지원비	학생활동지원비	0	12,220	12,220	
kit창의교육원				492,000	0	492,000	
	대학특성화사업			492,000	0	492,000	
		학생활동지원비	학생교육 지원경비	273,000	5,000	278,000	
		일반수용비	광고선전비	3,000	3,000	6,000	
		수선유지비	건물수선유지비	0	14,000	14,000	
			기계장치수선유지비	68,100	△68,100	0	
		재료비	실험실습 재료비	17,700	16,300	34,000	
			교육연구 재료비	18,000	△3,000	15,000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38,000	△2,000	36,000	
			전산개발비	3,000	△3,000	0	
		유형자산취득비	실험실 비품비	22,000	△22,000	0	
			실험실 강철장비구입비	49,200	△49,200	0	
			실험실습 기자재	0	81,000	81,000	
			강의실기기	0	20,000	20,000	
		무형자산취득비	교육소프트웨어	0	8,000	8,000	
공학종합실습센터				850	△700	150	
	공학종합실습센터 기본사업			850	△700	150	
		일반수용비	지급수수료	550	△550	0	
			학술대회	300	△150	150	
공학교육혁신센터				122,990	△20,290	102,700	
	공학교육인증 유지평가			122,990	△20,290	102,700	
		그밖의일반행정경비	회의및위원회수당	38,000	△1,600	36,400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3,800	1,200	5,000	
		공공요금및각종세금	각종부담금	81,190	△19,890	61,300	
K-CDP센터				30,800	△16,660	14,140	
	상담지도운영			8,800	△8,800	0	
		그밖의일반행정경비	특강강사료	1,200	△1,200	0	
		학생활동지원비	학생활동지원비	7,600	△7,600	0	
	역량계발운영			22,000	△7,860	14,140	
		일반수용비	소모품비	1,000	500	1,500	
			지급수수료	0	40	140	
		여비교통비	국내여비	1,000	△500	500	
	보전금	포상금	20,000	△8,000	12,000		
교수회				5,550	0	5,550	
	교수회 기본사업			5,550	0	5,550	
		일반수용비	각종행사용품구입비	1,650	750	2,400	
			정기간행물구독료	900	△250	650	
		여비교통비	국내여비	3,000	△500	2,500	
		계		3,348,064	0	3,348,064	

- * 필수경비 외 예산요구사항은 부서자체 예산 이전용으로 예산 조정
- * 부서별 자체예산 조정 후 제출한 불용액은 사업 필수 경비로 이전용하여 예산 편성
<불용재원 이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불용액	세출예산편성 내역
기획협력처	33,600	○ 교무처 회의비 : 3,000천원 ○ 4대보험 부담금 : 20,000천원 ○ 국내여비 : 28,500천원 ○ 자퇴자 반환금 : 27,750천원 ○ 수도권광열비 : 16,000천원 계 : 95,250천원
사무국(해오름연수원)	14,000	
입학관리본부	10,000	
공학종합실습센터	700	
공학교육혁신센터	20,290	
K-CDP센터	16,660	
계	95,250	

□ 주요사업별 개요(추경예산편성)

- 대학원 장학금 : 865,757 → 885,757천원(증 20,000천원)
 -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외국인 장학금 증액 : 20,000천원
- 교무처 강의료 : 658,240 → 738,215천원(증 79,975천원)
 - 전업, 비전업 시간강사료 부족분 : 49,350천원
 -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부족분 : 30,625천원
- 대구 통학버스 운영 : 804,150 → 914,150천원(증 110,000천원)
 - 학생 이용감소에 따른 부족액 발생, 발전기금 적립금 재원활용으로 통학버스 임차료 증액 : 110,000천원
- 대학 공공요금 : 381,041 → 495,066천원(증 114,025천원)
 - 전기요금 등 부족분 증액 : 114,025천원
- 청소·경비 용역사업 : 1,102,604 → 1,179,604천원(증 77,000천원)
 - 청소·경비 용역료 부족분 증액 : 77,000천원
- 특성화 사업비(융합형프로메카트로닉스 인력 양성) : 0 → 309,844천원(증 309,844천원)
 - 융합형 프로메카트로닉스 인력 양성사업비 : 309,844천원
- kit융합기술원 운영비 : 127,254 → 147,254천원(증 20,000천원)
 - 단위 연구소 연구활동 예산지원 : 20,000천원

□ 주요사업별 개요(성립 전 예산편성)

- (6차)평생교육원 증액예산 편성 : 371,000 → 394,300천원(증 26,900천원)
 - 구미시 평생교육특화프로그램 : 4,000천원
 - 수강료 추가 세입액 인건비 등 반영 : 22,900천원
- (7차)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국가지원금) : 0 → 854,000천원(증 854,000천원)
 - 실험실 안전장비 구입 : 754,000천원
 - 실험실 안전환경 구축 시설비 : 100,000천원
- (8차)국립대학 조교연구성과급(국가지원금) : 0 → 17,784천원(증 17,784천원)
 - 국립대학 조교연구 성과급 : 17,784천원
- (9차)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국가지원금) : 0 → 230,000천원(증 230,000천원)
 - 계약직원 인건비 및 사업운영 경비 : 230,000천원
- (10차)수입대체 추가세입액 예산편성 : 3,430,238 → 3,759,617천원(증 329,379천원)
 - K-RC교육원 수선유지비 및 건설비 : 279,369천원
 - 최고경영자과정 인건비 등 운영경비 : 50,010천원
- (11차)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국가지원금) : 0 → 83,800천원(증 83,800천원)
 - 인건비 및 사업운영경비 : 83,800천원
- (12차)고교교육정상화 공동사업비(국가지원금) : 0 → 26,000천원(증 26,000천원)
 - 특강강사료 등 추가지원 공동사업비 : 26,000천원
- (13차)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국가지원금) : 5,986,600 → 6,771,402천원(증 784,802천원)
 - 시간강사 강의료 : 784,802천원
- (14차)대학특성화 사업단 사업비 : 230,911 → 1,869,315천원(증 1,638,404천원)
 - 대학특성화 사업 3차년도 사업운영비 : 1,638,404천원
- (15차)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국가지원금) : 0 → 521,000천원(증 521,000천원)
 - 2016년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운영경비 : 521,000천원
- (16차)국가근로장학금(한국장학재단) : 459,900 → 1,027,100천원(증 567,200천원)
 - 국가근로장학금 2차 교부금 : 567,200천원
- (17차)평생학습중심대학(국고보조금) : 0 → 180,000천원(증 180,000천원)
 -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사업비 반영 : 180,000천원
- (18차)산학기술창조관 구축 보조금(구미시) : 0 → 200,000천원(증 200,000천원)
 - 산학기술창조관 시설비 지원 : 200,000천원

□ 부서예산조정 개요(예산 이전용 : ±277,617천원)

○ 대학원 예산조정(변동없음)

- 증액조정 : 외국인 장학금(8,000천원), 소모품비(2,800천원)
- 감액조정 : 학생활동지원비(-8,000천원), 도서인쇄비(-2,800천원)

○ 교무처 예산조정(3,000천원 증)

- 증액조정 : 강의실 수선유지비(5,000천원), 위원회 회의비(3,000천원),
총장후보선출 운영회의비(5,000천원)
- 감액조정 : 하계연수 행사경비(-5,000천원), 소모품비 절감(-5,000천원)

○ 학생처 예산조정(변동없음)

- 증액조정 : 혈압계 구입(580천원), 소모품비 부족분(3,255천원)
- 감액조정 : 의료공제회 소모품비 절감(-580천원), 보험료 잔액(-3,255천원)

○ 기획협력처 예산조정(33,600천원 감)

- 증액조정 : 광고선전비(52,500천원)
- 감액조정 : 대외재정지원사업(-7,000천원), K-MOOC사업(-50,000천원),
정책자문단운영(-2,000천원), 학부평가(-1,000천원),
4주기 교원양성기관(-2,700천원), 대학기관평가인증모니터링(-10,900천원),
명예홍보대사(-2,500천원), 자랑스러운 금오인(-2,800천원)

○ 사무국 예산조정(62,250원 증)

- 증액조정 : 법정부담금(20,000천원), 국내여비(28,500천원),
자퇴자반환금(27,750천원), 직협 소모품비(4,000천원)
- 감액조정 : 영덕수련원운영(-14,000천원), 직협 행사경비(-4,000천원)

○ 사무국(시설) 예산조정(16,000천원 증)

- 증액조정 : 청소용품 구입(20,000천원), 시설비(40,000천원), 수도광열비(16,000천원)
- 감액조정 : 지급보험료(-10,000천원), 설계비(-30,000천원), 시설부대비(-20,000천원)

○ 입학관리본부 예산조정(10,000천원 감)

- 증액조정 : 입학전형 소모품비(800천원), 입학전형 차량임차(2,620천원)
학생활동지원비(12,220천원)
- 감액조정 : 위원회수당(-500천원), 국내여비(-15,140천원)
교육소프트웨어 구입비(-10,000천원)

○ kit창의교육원(변동없음) : 대학특성화 사업간 조정

○ 공학종합실습센터(700천원 감)

- 감액조정 : 일반수용비 절감액(-700천원)

- 공학교육혁신센터(20,290천원 감)
 - 증액조정 : 자체평가보고서 제작(1,200천원)
 - 감액조정 : 집필비 및 인증평가료 절감(21,490천원)
- K-CDP센터(16,660천원 감)
 - 증액조정 : 역량계발운영사업 일반수용비(640천원)
 - 감액조정 : 상담지도운영 절감액(-8,800천원), kit인재인증 포상금(-8,000천원), 국내여비(-500천원)
- 교수회(변동없음)
 - 증액조정 : 행사용품 소모품비(750천원)
 - 감액조정 : 정기간행물 구독료(-250천원), 국내여비(-500천원)

2. 회의 녹취록 전문

제 6회 재정위원회

2016년도
재정위원회
(임시회)

임시회 본회의록

제 1 호

금오공과대학교

일 시 2016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금오공과대학교 중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학년도 제2차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안)
2. 2017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6학년도 제2차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안) 25
2. 2017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33

(10시30분 개의)

○ **간사 배효근**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간사 배효근입니다. 재정위원회 위원 15분 중 10분이 참석하여 국립대학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금오공과대학교 재정회계 운영규정 제8조 제5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재정위원회 임시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위원장 채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재정위원회 임시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정위원회운영에 관하여 간사인 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 배효근** 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 재정위원회임시회 회의록을 7월 15일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22일자로 이용학 국장님께서 뉴욕한국교육원 파견으로 공석인 사무국장의 자리에 2016년 9월 12일자로 박병태 국장님께서 부임함에 따라서 박병태 사무국장

으로 당연직위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새로 위명된 박병태 재정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태 위원** 제가 사실은 법제처라는 곳에서 법령을 총괄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서도 협정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제도뿐만 아니라 그 예산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스트리아나 핀란드 같은 나라는 인구가 오륙백만 명 정도 되는 소국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때 그 출산율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쓴 적이 있고 지금은 반대상황이다 보니까 인구감소로 대학정원감축이 되면서 이 재정상황이 엄청나게 악화되고 저는 그래서 교육부에 있을 때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국민의 의식이 변해야만 나아질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대선이라든지 각종 선거에서 워낙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그 교육복지를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교육부에 있으면서 많이 느낀 게 돈이 거기로 다 쏠려서 집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교육부사업

도 거의 폐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학교에 들어올 돈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큰 의식의 변화없이 선거중심으로 이게 국가가 가다가는 큰일나겠다. 왜냐하면 표 얻기 위해서 그 그런 공약을 남발해서 이 복지를, 원래 복지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이 1만 불 대, 2만 불 대, 3만 불 대, 5만 불 대 이렇게 다 복지에 대한 수준이 거의 정해져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빨리 가다보니까 사업을 다 접고 밥 먹이는데 그냥 돈을 다 쏟아 붓는 그런 상황이라 참 이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막 어려운 상황에 제가 이런 위원회 위원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걸 좀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될 상황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제 획기적인 뭔가 있어야겠다. 근데 이제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또한 상당히 객관적이면서도 이 중립적으로 잘 뭔가를 결정해 주셔야만 살림살이가 좀 그나마도 원활하게 진행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저도 지금까지 독특한 쪽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쪽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예. 고맙습니다. 대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학의 발전과 재정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에 아주 적합하신 분이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개의 안건으로 2016년도 대학 회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과 중기2016에서 2020까지의 재정운영계획 안건입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위원장인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를 켜신 후 성명을 말씀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학년도 제2차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안)

○ **위원장 채창현** 그러면 제1호 안건인 2016학년도 제2차 대학회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호 안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

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 **재무과장 배효근** 재무과장 배효근입니다. 먼저 제1호 안건인 2016학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학생수업료의 추가수입분하고 그리고 산단전입금 및 국가지원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고 국가지원금과 수입대체경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액 승인과 과부족 예산이 발생한 각 부서의 예산을 이·전용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675억 5,335만 4,000원에서 59억 390만 4,000원이 증액된 734억 5,7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회비수입증가분이 2억 9,100만원 산단회계전입금 2,000만원 발전기금회계전입금 1억 1,000만원 그리고 국가지원금 3억 9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편성액 54억 5,926만 9,000원 국가지원금 및 수입대체경비 예산조정액이 2억 8,0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액분에 대한 세출예산액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회비수입추가분 2억 9,100만원은 대학원장학금의 2,000만원 그리고 강사료 부족분의 7,997만 5,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1억 1,402만 5,000원, 청소경비 등 용역료의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회계전입금 1억 1,000만원을 학생처의 대구통학버스 임차료 부족분의 증액 편성 하였으며 특성화사업국가지원금 984만 4,000원은 kit창의교육원의 융합형 프로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산단회계 전입금 2,000만원은 kit융합기술원의 연구소 활동비 지원비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편성액 54억 5,926만 9,000원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이·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이·전용 주요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원은 학생활동지원비를 학생활동장학금으로 8,0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무처는 행사경비와 소모품비를 절감하여 강의실 개설비와 총장선출에 따른 회의비에 각각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획협력처는 총예산 중 3,36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각 사업의 절감예산을 광고 선전비로 5,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은 대학회계직원의 고용보험부담금 2,000만원, 국내여비 부족분 2,850만원, 수업료반환금 2,7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입학본부를 비롯하여 kit창

의교육원 등 부족시설에 대한 예산 이런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된 대학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학년도 제2차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 위원님.

○ **구정호 위원** 예, 구정호입니다. 일단은 없는 살림하시느라고 학교본부나 우리 사무국 애 많이 쓰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매번 이제 벌써 저희가 6회 진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사항으로는 일반예산 이용하거나 전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부서에서 절감한 부분을 사용하는 그러면 패턴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예산보다 더 많이 집행한 거에 있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범위 내에서 기획처라든지 교무처라든지 자체 총 예산안에서 조정을 한다할지라도 더 많이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일단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와 같이 연동해서 느끼는 사항은 주어진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우리도 모르게 누적돼왔던 그런 관습 같은 게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용과 전용부분에서 느껴지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항을 항상 제가 느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재정위원회 하는 의미가 조금 많이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하나를 제가 지적을 해 드리면 이용 전용액을 보시면 소모품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요. 소모품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모품은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게 소모품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종이 우리가 쓰고 있는 문구 뭐 이렇게 토너 이런 것들인데요. 과연 저는 정말 학교가 문구, 종이, 토너 이런 게 없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소모품이 증액된 금액이 이용 전용액을 계산해 보셨으면 얼마인지 아실 거고요. 대략 3,000만원 넘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돈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회의비입니다. 회

의비도 뭐 이거 말고 이따 뒤에서 반영하겠다고 하는 사항들이지만 회의비는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최소의 지금은 이제 저희 항상 누누이 말씀 요구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회의 좀 그만하자.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의비도 보시면 1,600만원이 과다지출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된 거보다 모자라서 추가로 지출한 부분이 1,60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모품을 추가적으로 지출한 부분은 3,000만원과 회의비를 추가적으로 지출한 부분을 1,700만원 대략 합쳐도 4,7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저희 학교처럼 없는 살림에서 과연 적은 재원은 아닙니다. 각각의 팀으로 보면 100만원, 200만원이 될 수 있지만 이 재원을 모으면 4,700이 되고요.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학부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부에서 교수님이 학과를 잘 운영했는지 못했는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서 저희 학교 올해 지출된 예산은 좀 많았지만 통상적으로 한 6,000 범위 내에서 이 6,000을 가지고 학과에 인센티브 식으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4,700이라는 재원은 학과평가랑 비교해 봤을 때 적은 재원은 아닙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그러면 예산대비 과다하게 지출했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제대로 잘 집행했느냐 이거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서 평가를 할 수 있지요. 근데 매번 말씀뿐이세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우리가 뭐 비용을 경비로 줄이겠다. 그리고 보상과 연계를 하겠다. 매번 말씀뿐이세요. 제가 매번 말씀뿐이신 거를 한 번이라도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신 의향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 본부라든지 사무국에서 고민해 주셔야 될 사항이지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예산액 이용하고 전용한 케이스를 보니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각각의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본부라든지 평가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부의 직원들은 평가를 받으셔서 어떠한 그 영향사업에 직원영향사업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이런 각각의 사업이라든지 전체 부서의 이런 예산집행과 관련된 이러한 평가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고서는 저희 재정위원회에서는 뭐 승인을 뭐 다음 연도에 예산을 할 때 승인을 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2년을 하고 나서는

그러면 제가 솔루션을, 대안을 드리고 뭔가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금액을 한번 제시를 해 봤고요. 충분히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구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본부에서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재정정책팀장 강태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9월 달에 재정절감계획하면서 또 그 전에도 매번 구매요구 들어오고 하면서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이게 지금 들어온 거는 또 원래 예산이 작년대비 편성할 때 뭐 홍보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한 30% 넘게 삭감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기획처 같은 경우는 그런 원래 추경예산재원으로는 다른 사업은 신규사업은 불허한다고는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 있는 부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조정해서 하라고 해서 기획협력처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좀 커서 회의비나 소모품이나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재정절감 기획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는데 제일 물론 저희 사무국에 의지도 문제지만 교수님이나 직원이나 기본적인 의식이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냥 우선적으로 예산 잡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절감하겠다는 그게 마인드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안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에너지절감이나 이런 것도 지금 시설에서, 지금 에너지절약 같은 경우도 시설 같은 경우는 매번 점검하고 해서 그나마 우리 학교가 원래도 그렇게 덜고 했지만 여름 전까지는 에너지가 작년대보다 조금 줄어들었다가 여름에 조금 더 더워서 좀 시원하게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동참을 하면서 물론 관리도 하고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좀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달하고 10월 12일 날 직장교육이나 교수회의에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체감을 직접적으로 체감을 못하니까 사업비 없으면 아, 안 해도 된다. 그냥 뭐 다른 직접적으로 민감한 사업비나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쓰지, 나머지 사업비나 소모품비나 안 쓰거든요.

○ **위원장 채창현** 잠깐만요. 그런 얘기할 건 없고 지금 사실 구 위원님께서 소모품하고 회의비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 거거든요. 본부에서는 그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운영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 **이승희 위원** 예, 예. 맞습니다. 구정호 교수님

지적해 주신 거 참 좋은 의견 같고요. 말씀대로 이렇게 배정된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12월 중에 제가 업무보고를 저희가 부서별로 받을 때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주요 부서장이 계속 개선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이게 개선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에서는 저희 부서평가가 있습니다. 아까 학과평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서에서 이런 절감을 한 부서에 대한 평가를 좀 좋게 평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서별로 이런 효율적인 방안들이 나올 거고요. 노력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뭐 지적해 주시는 거 내년, 내후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본부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기획협력처 예산 중에 자랑스러운 금오인 선정이나 명예홍보대사 선정 같은 예산이 별로 안 들이고 우리 학교의 어떤 좋은 점 또는 위상 같은 걸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다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 **이승희 위원** 예, 그 사실 이번에 입시를 치르면서 학생 수가 점점 인구가 감소되면서 대학에 학생모집이 참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 입시홍보예산이 가까운 인근에 있는 구미대하고 비교하면 1/3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나마 국립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했는데 저희가 다른 예산을 감축하더라도 지금 모집일 입시홍보는 저희들 농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봤을 때는 입시가 성공을 해야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타 지역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입시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 봤을 때 그나마 그래도 그쪽이 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자랑스러운 금오인 사람 선정 같은 경우에는 동창회 기금도 있고요. 또 약간 다른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들을 줄여서 그런 쪽으로 좀 돌려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이거 말씀대로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비용으로 좀 이걸 하겠다 말씀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 위원님.

○ **박병태 위원** 제가 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면 이 초과 집행한 그러니까

그 전용이나 이용 등을 통해서 추가로 돈을 가져가서 더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사유라든지 그다음에 집행한 결과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나 이용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회계점검이나 감사에서 이거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초과집행 한 거라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전액삭감 한 거 이거에 대해서 그런 삭감하기 전에 그게 삭감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어진 예산을 다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집행을 못하면 일을 다 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 다음에 결산을 하면서 예산 그다음에 예산안 심사를 받을 때 실제로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예산낭비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회계예산은 다행히도 이월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절약한 거에 대해서는 표창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조건 주어진 예산을 불필요하게 다 쓰는 것은 예산낭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타성에 젖어서 계속 말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정악화가 되다보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반성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의비라든지 일반 수용비에 대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 회의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거나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까지도 떨어뜨리는 그런 회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는 큰 인식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옛날에 비해서 좀 절약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옛날의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통계조달청을 통해서 일괄구매를 해서 볼펜 하나라도 이름을 적고 주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줄이지 않으면 이 재정악화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우리 사무국직원이나 직원회의 같은 거 할 기회가 있으면 인식전환을 한번 유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예, 구 위원님.

○ **구정호 위원** 아까는 이제 커다란 그림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세부적인 사항을 여쭙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번 학생처에서도 대답을 하시긴 하셨

지만 학생통학버스 그때도 심각한 적자로 인해서 저희가 큰 문제였었죠. 그래서 노선을 조정을 하니 마니 어쨌든 기타 등등의 논의사항들을 학생처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봤더니 학생처의 저희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거 학생통학버스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학교재정이 좋았을 때는 큰 이게 부담이 되지 않지만 이 금액을 보면 가장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다는지 그럴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처에서 이 통학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일단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지적이 될 사항은 우리가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연초에 계약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계약했을 때 1년간 얼마를 집행하겠다는 거 연 계약을 하지 우리가 월 단위의 계약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용역비가 7,700이 늘어났을 때는 특별한 뭔가 사항에서 추가적인, 이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 단위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큰 금액이 청소나 용역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뭔가 더 했길래,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갔는지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 전기요금 아까 열심히 우리가 이제 또, 저희 학교에서 에너지절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학교에 전기시스템, 이 공공요금이라는 게 전부 인상되는 부분이 전기요금인지 이것도 일단 첫 번째로 의심스럽고요. 여름에 좀 많이 시원하게 해 주셨지만 나라에서 그만큼 전기요금 여름 쓴 만큼에 대한 배려는 올해연도에 한해서 일단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혜택을 봤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기요금이 저희가 뭐 건물이 더 지어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건물이 더 지어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다고 전기요금이 매년 상승률이 물론 누진제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이제 되게 커서 내년도부터 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거가 다 100% 다 전기요금이라고 저는 되게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전기 공공요금이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뭐 건물별로 저는 이 전기요금 지금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전체로 부과되고 있는 건지 우리 아파트처럼 가가호호, 저희 학교는 가가호호는 아니지만 건물 별로 이렇게 측정해서 부과를 하는지 뭐 이런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 걸 모른다하더라도 뭐 LED 조명
으로 교체한다. 이렇게 등등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다.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교체를 하고 있는
지, 얼마만큼 교체를 했는지 뭐 이런 사항은 전제
없는 상태에서 아,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이니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됩니까라는 이런 논리거든요. 그
래서 이제 그런 사항들을 좀 이렇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무국에 저는 지금까
지 이거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궁금한 사항인데
요. 뭐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반환금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입학관리본부에 해
당되는 지급임차료 입학관리본부에서 무엇을 빌려다
쓰길래 지급임차료 같은 항목이 나오는지요 일단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기획협력처에서 하는 삼성교
육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는 재원이 외부
재원으로 가져다가 100% 수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
면 외부재원 중에 일부 학교가 출현해서 학교에 대
학회계에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도 일단 궁금합니다.

○ **위원장 채창현** 소관부서별로 답변 좀 해 주시
죠. 먼저 차량임차료부터.

○ **재정정책팀장 강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는 이번에 1억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은 1학기 때 1,000만원인가 2,000만
원, 1,500가까이 부족분이 발생했었고 이번에 이제
2학기에 1억 1,000만원이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이 어디 있고 하나면 지금 발전기
금에서 예전에 이제 대구통학버스운영 같은 거 연도
별로 남아있는 금액을 계속 누적해서 가지고 있는
게 지금 2억 정도 있습니다. 2억 있는데 1학기 때
1,500인가 2,000만원 저..

○ **구정호 위원** 소진하고 없죠.

○ **재정정책팀장 강태구** 받아서 썼고 이번에 이제
2학기 때 1억 1,000만원 썼고 이제 그 재원이고요.
그리고 통학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2년 단위로
조달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끝나고
이제 내년에 다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데 아마 학
생처에서 지금 기숙대학운영에 따른 1학년 학생수
감소나 그런 걸 반영해서 지금 노선이나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대석 위원** 제가 좀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저희 학생통학버스는 거기 근본적인 문제
점을 알고 있는 그런 사업에 해당되는 거고 일단은

이 학생통학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없애보려고 하게
되면 사실은 대학회계에서 전액을 지원을 하든지 아
니면 없애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회계에서
거기 전액 지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불법, 편법으로 지금 운
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예전에 어느 정도 사정
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그럭저럭 운영돼왔지만 지금
은 이제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긴 해서 전반적으
로 좀 근원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이번에 한 1억 1,000정도의 적자가 났는데 그
거는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 가지고 항상 거기 예
산을 측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학교에서 RC프
로그램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기숙사에서 거기 들어가게 됨으로서 통학버스를 이
용하지 않게 되었고 또 학교주변에 또 원룸들이 많
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300명 정도가
거기 줄었습니다. 이용학생이. 그래 가지고 거기에
1억 정도의 적자가 나서 뭐 지금 재정이 안 좋으니
까 부랴부랴 아까 강태구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적립해둔 돈에 대해서 1억 원 정도 우리가 가
져와서 비용처리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증액을 했고
요. 요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거기
통학버스는 지금 2년 계약이 끝나서 앞으로 2년 계
약을 우리가 세워서 또 운영해야 하는데 뭐 예상되
는 적자가 볼 보듯 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
려고 하게 되면 거기 그 방법이 몇 개 없거든요. 첫
번째는 그 버스대수를 줄여가지고 좀 거기 그 어떤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버스 운
임료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경우나 다 민
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런 학교통학
버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입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좀 이번 거기 발전기금을 통해서 적자분을
보전 받은 것은 하여튼 간 우리가 요청을 했던는
거고 다음 또 2년 계약을 맺었을 때 우리가 또 이
제 적자가 내지 않고 지금 수입대체회계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대비 지출이 같을 수 있는 회
계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거
의 다 해 났습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이 뭐냐 하면
버스 대수도 줄여야하고 그다음에 혹시 또 불가피하
게 이 부분 인상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참 고
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간사 배효근** 예. 그 아까 구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요금하고 용역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제 공공요금은 100% 편성하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용역료도 100% 편성하지 않았습니 다. 지금 우리가 이제 내년 1, 2월 달은 국가회계에서 국가지원금에서 공공요금 및 용역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회계는 1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우리 대학회계는 3월 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 문에 내년 2017년 국가예산으로 내년도 1월분 공공 요금과 청소용역비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대학회계 예산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이 돈을 내년 1, 2월분 청소용역료 및 공공요금을 원래 2016년 대학회계 예산으로 부담한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 렸지만 공공요금에 뭐 늘어났거나 우리 당초 예산추 정액보다 그리고 청소용역료가 더 추가로 늘어난 부 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반환금은 학생들이 납부한 등 록금입니다. 등록금인데 그중에서 이제 중도에 휴학 하거나 자퇴하거나 이런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환불 해 주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 여기 이 제 제5쪽 부분이, 그 부분이 제5쪽 사무국에 반환 금, 그밖에 반환금에서 1억이 당초에 편성했는데 학 생들이 중도 우리가 추정했던 금액보다 중도에 이제 나간 학생이 많아서 반환금이 이렇게 더 추가로 소 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구정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가회계에서 지급 해야 될 거를 대학회계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대학 회계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항이지 않아요?

○ **간사 배효근** 지금은 국가회계랑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가 있고 그리고 대학회계가 있는데 똑같습 니다. 그 돈은 국가회계는 전부다 대학회계를 편입 해서 그 지금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예 를 들어서 우리 국가가 대학이 공공요금 기본경비를 부담을 하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억 이다. 그대로 대학회계 편입해서 받습니다. 그것은 같이 섞어서 썼습니다. 물론 편성을 하지만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그 국가회 계와 대학회계를 별도로 이제 집행을 했지만 이제는 모든 국가행위는 대학회계 편입해서.

○ **구정호 위원** 같이 집행..

○ **간사 배효근**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월 달이 국가회계와 대

학회계하고 좀 중첩됩니다. 매년 1, 2월달은 대학회 계는 전년도 16년 회계가 되고 국가회계로 봐서는 17년 회계가 되는 중첩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대학회계는 16년 예산에 써야 하고 국가회계는 17 년도 예산입니다. 결국은 내년 1, 2월 내에서는 국 가에서 우리가 편성을 서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다 그러면 대학회계는 16년도 예산이 지만 국가회계는 17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그렇게 중첩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승희 위원** 그 삼성전자 교육소프트웨어 사업 이게 그 수치로 봤을 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인력양성을 위해서 컴퓨터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에다가 1년에 아마 2 억씩일 겁니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 발전기금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저희로 들어왔는 데 저희가 쓸 수 있는, 직접 쓸 수 있는 것은 이런 연구자료비, 실험실기자재밖에 못쓰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못쓰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또 대학 회계로 넣었다가 그쪽에서 찾아 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업무추진비 여기서 회의비 이상하게 6,500 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2년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학과에서 2년 지원하면 끝나버리니까 그 이거를 이월을 하고 싶다는 거예 요, 돈을. 3차년도에서 쓰고 싶어서 항목에다가 넣 던 것이 여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결국은 이월될 겁니다. 이월되면 자기들은 이제 2년 끝나는 거보다는 그 2년 끝나면 또 쓸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그쪽으로 이월해서 그때는 또 항목변경 을 해 가지고 기자재가 사려고 쓰겠죠. 그렇게 요청 을 하고 그러면 그 삼성전자에다도 그거를 알려줘야 하고 그 부분을 허용,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했더니 삼성전자에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 도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 숨겨진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 학과로 나갑니다. 학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항목이 딱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신춘월 위원** 네, 입학관리본부에 임차료증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수시 하고 정시 때 직원들이 입시홍보 차 활용하는 렌트 비. 여기 보시면 이제 여비를 일부 감액이 되고요. 차로 가니까 이제 그 렌트하는 비용이 증액이 좀 돼서 그리고 7월 1일 이후에 입학사정관이 2명이 채용이 돼서 전년대비해서 홍보가 굉장히 현장밀착 해서 방문해서 직접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차량 렌트

비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창현** 대부분 다 의문은 아마 해결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정연구 위원님.

○ **정연구 위원** 예, 비교적 간단한 부분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번 연초에 예산집행하실 때 K-MOOC 사업이 한 건에 5,000만원 잡혀 있어서 이거 어떤 건가 좀 자세히 여쭙봤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네요. 그 사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간강사 강사료 증액이 좀 됐는데요. 8,000만 원 가까이 실제 시간강사 부족분이 한 5,000만원, 전임강사 초과강사료 부족분이 3,000만원 이렇게 되네요. 실제 전체 시간강사료에서 전임, 비전임 시간강사료 이 부분하고 전교원 강사료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쪽을 좀 조정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기타예산조정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2억 8,000 있는데 별첨자료 참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별첨자료가 따로 있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승희 위원** 먼저 K-MOOC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정부에서는 이런 온라인 강좌 K-MOOC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TF팀도 만들고 이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에 푸시를 가했었는데요. 그중에 이 K-MOOC를 최소한한 강좌이상은 해라. 근데 그 예산은 ACE 예산에 반영하든 CK 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대학회계에서 반영하든 반영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들은 ACE가 작년에 신청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ACE 하고 성격이 좀 맞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교양이나 이런 강사는 거기다 반영을 해서 ACE가 되는 금액 그 예산을 반영하고 이 돈을 빼려고 했습니다. 근데 빼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면 안 되면 이제 교육부에 다가는 대학회계에서도 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마침 이 돈을 CK에다가 반영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날려도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 **구정호 위원** CK에 반영..

○ **이승희 위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 **재정정책팀장 강태구** 예,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 **위원장 채창현** 강사료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이재원 위원**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그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전업강사분이 한 120명 그리고 비전업 강사분이 한 30명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학기 말쯤에 교육부에서 통보가 또 내려왔습니다. 뭐냐면 강사료를 증액을 시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다가 소급적용을 하라 해가지고 작년 3월부터 8만원씩 지급을 했던 그분들한테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올리라고 했는데 저희는 최하로 3,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3월 1일자로 해가지고 3,000원씩 증액을 해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시간강사 분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전임강사 수업초과수 시수가 적으면 그러면 시간강사를 그만큼 많이 써야 되고요. 또 이분들을 시간강사분들을 적게 쓰게 되면 교수님들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교무처에서는 조정방안을 이제 절감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방안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일과목에 특히 이제 교양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동일과목에 한 4강좌 정도 열리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목들이 최소 인원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을 저희들이 다 지금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분반수를 줄여서 4개 강좌라고 그러면 3개 강좌 또는 2개 강좌로 줄이고 이와 같이 해서 절감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구정호 위원** 그러면 그 강좌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개였던 거 2개로 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강좌가 대화가 되는데 그러면 대화에 따른 부작용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대화에 대한 뭔가 서포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한 30명 가르쳤었는데 60명 가르치면 예를 들어서 그만큼 이제 로드도 많아지지만 학생들이 집중하는 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뭐 특히나 이제 교양강좌처럼 예를 들어서 100단위로 집어넣겠다. 제가 이걸 그냥 100단위로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0단위로 들어가겠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강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이

거를 서포팅 해 줄 수 있는 강사를 정비한다든가 그 시수를 줄인 만큼의 통합한 만큼 뭔가 서포팅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가적인 것까지 같이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재원 위원** 예. 그것도 고려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저희 교무처에서는 이제 다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러한 강좌들이 대단위 강좌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명 기준인 그러한 강좌들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좌에 대해서 4개 강좌가 열린다 그러면 60명입니다. 그것을 30명 단위로만 줄여도 30명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15명인 이러한 강좌에 최소인원이 15명 정도만 신청을 한다거나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각 강좌별로 한 5명에서 10명 정도로만 늘려주면 그러면 강좌수를 2개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그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인원수가 많아야 5명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대단위강좌에 대해서 절대로 금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좌당 인원수가 늘어나면 또 지표에 어떤 경우는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 **구정호 위원** 그러면 대략 예를 들어서 강좌가 100개인데 이렇게 하면 한 몇% 줄일 것 같다. 이런 거 혹시 이렇게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이재원 위원** 그거는 아직 계산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간강사료 중에서 전임교원 추가강사료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재원 위원** 아, 그건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어..

○ **재정정책팀장 강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강사료는 74% 정도 차지합니다.

○ **정연구 위원** 아, 비전임교원이 하는 거가 어쨌든..

○ **재정정책팀장 강태구** 지금 전임교원초과강사료가 19% 차지. 그리고 비전임교원이 7%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예.

○ **재정정책팀장 강태구** 참고로 시간강사료는 이제 국고에서 70% 주고 30%는 우리 대학이 반영하고 나머지 비전임교원강사료하고 전임교원 추가강사료는 대학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러니까 전임교원 추가강사료가 늘어나는 거는 하고 대학회계 부담이 난다는 거예요?

○ **재정정책팀장 강태구** 그렇습니다.

○ **정연구 위원** 예.

○ **위원장 채창현** 3쪽에 별첨자료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재정정책팀장 강태구** 예, 3쪽에 그 국가지원금 계수조정에서 그거는 저희가 일반회계예산 하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그 공공요금으로 돌리는 부분, 그 부분이라서 저희가 별도자료는 준비를 했는데 나눠드리지 못한 점 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간사 배효근** 일반회계 전체 국가지원금 중에서 그 예산을 감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대학회계 큰 영향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전체 이제 국가지원금 예를 들어서 100억 들어오기로 했는데 뭐 90억밖에 안 들어왔다.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감 조정한 그런 계수적인 부분입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럼 수입대체.

○ **간사 배효근** 수입대체경비 이것은 학생식당이 이제 예산을 당초보다 수입이 그 적게 들어와서 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연구 위원** 학생식당이 교직원 식당도 포함되나요?

○ **간사 배효근** 예, 포함됩니다. 당초보다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죠.

○ **정연구 위원** 연초에 식비 조금 올리고 그러면서 예산을 많이 잡은 건가요?

○ **간사 배효근** 예,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부분을 가면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개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타 의견이 없으십니까?

○ **신춘월 위원** 예, 신춘월입니다. 저는 그 예산편성 지침이 2016년도에 이 자료를 오기 전에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 국가기관들은 업추비는 증액 대상에 아예 제외입니다. 어디든지.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지금 이 전용 내역에 보면 기획협력처 같은 경우는 업추비를 감액을 한 반면에 교무처 같은 경우는 업추비를 800만원이나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된 상황인데요. 우리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16년도에 재무과에서 주신 거에 보면 그 작성요령에 그 세출예산편성 요구서에 업추비에 대한 작성방법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2015년 본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특별히 물론 뭐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와 당초에 이런 게 예상이 됐다면 올해 현황이 있고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이거를 예측치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증액한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우리 오늘 그 구정호 위원님이나 재정위원 여러 분들이 공통적인 게 지적사항에 보면 저는 이게 그 사업경비에 그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을 사업부서나 재무. 그러니까 예산회계 다루는 담당부서에서 좀 엄밀히 따져가지고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렇게 그 위원회에 왔을 때 위원들이 다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편성할 때는 당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채창현** 예, 이재원 위원님.

○ **이재원 위원** 예, 이재원입니다. 우선 교무처 기본사업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총장 후보 선출에 관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선 기본사업 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교무처에서 이번 올 1년 동안에 너무 회의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현안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현안들을 위한 회의가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회의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90만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못합니다. 교무처에서. 그래서 부득이 30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총장후보선출에 대한 이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1,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때는 최소화해서 그래서 잡아놨습니다. 근데 그 총장선거 그 제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뀌면서 위원회가 예전 같으면 소이 선거관리위원회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요.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는 위원회가 최소한 3개가 늘어났습니다. 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 회의비를 좀 증액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업무추진비를 증액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지적해 주신 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금액으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줄어든 거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 **구정호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짚어드린 것처럼 업무추진비 회의비는 100%다.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약 1,700만 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 **위원장 채창현**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돼서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수정안을 특별하게 제시하지 않는 한 동의를 이번 건에 대해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총장의 후보선출이라는 특수성 하고 또 기본사업에 중대성을 생각해서서 동의를 해주시면 이번 건은 업무추진비를 증액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예산전체 업무추진비는 줄었으니까 넘어가는 게 어떻겠느냐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이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춘월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을 주실 때 이런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은 이런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 재정위원회에 의결로 증액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정하고 이거를 해 주는 걸로.

○ **위원장 채창현**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일동** 동의합니다.

○ **위원장 채창현** 예.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건은 그러면 단서조항 하에서 승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기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견 없습니다.

제1호 안건인 2016년도 대학회계 제2차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원찬성에 의해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 **위원장 채창현** 다음은 제2호 중기재정운용계획 안건을 상정합니다.

제2호 안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간사 배효근** 예, 제2호 안건 2017년도 중기재

정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작성한 강태구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정책팀장 강태구** 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 강태구입니다. 구정호 교수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예산운영현실, 구성원의 예산 절감노력, 사무국 예산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론을 하면 모두들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하면 우리 부서만 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재정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총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은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5조 제2항 동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재정회계운영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게시 90일 전에 학내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7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5쪽입니다. 재정운용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측면으로는 국고기본경비 확충과 산학협력단 간접비 고시율증가로 안정적 재정기반구축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립대 혁신지원사업 및 특성화사업 등 다양한 국책사업선정과 발전기금 유치활동을 통한 기본재산증가 등 대학재정의 양적 성장으로 재정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산학기술창조관 신축 3차 BTL 및 해오름연수원 완공 및 국제공학관 유치 등으로 대학시설확대로 시설확충이 이루어졌습니다. 반성측면입니다. 대내외여건변화 대응과 재정운용효율성분석미흡 등 중기계획수립이 다소 미흡합니다. 두 번째로 예산운영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와 환류시스템연계가 미흡합니다. 18쪽입니다. 교육분야 정부투자방향입니다.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간 유사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2주기 구조개혁평가와 연계하여 대학에 투입되는 재원의 효과적 집행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개혁과 혁신을 유도하여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국립대혁신을 추진하고 19쪽입니다. 고른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교육비부담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등 교육비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교육분야투자계획입니다. 교육분야에 원래 내년도에는

56조 4,360억 원으로 전년대비 한 4.5% 증가되었지만 고등교육에는 9,444억으로 약 0.3%로 거의 증가율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20쪽입니다. 우리 대학 재정수입 지출전망입니다. 수입여건입니다. 반값등록금 등 정부의 교육비 부담 완화정책에 따른 대학생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로 대학재정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한 입학정원감축과 중도포기자 증가로 대학회계수입 감소규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라변 우리 대학 재정수입전망입니다. 국가지원금은 기본경비 및 시설비 등은 증가 후에 감소되어 유지할 전망입니다. 기본경비증가분유지와 건물확충에 따른 시설관리비 추가확보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체수입금입니다. 대학회계 주 수입원인 등록금수입은 입학정원이 크게 줄어드는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회계수입금입니다. 수입규모는 연평균 4% 증가할 전망입니다.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의무화와 평가에 의한 고시율 상승에 따라 간접비 실질수율은 증가할 예정입니다. 발전기금회계수입금입니다. 산학기술창조관 건립지원 및 대학운영경비로 발전기금회계수입금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입니다. 대학회계의 재정규모축소로 발전기금회계에서 장학금 등 대학운영사업비 지출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발전기금회계의 다음 연도 이월금은 점차 감소할 전망입니다. 연도별 수입전망은 표로 보시겠습니다. 국가지원금 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작년도에 22억 3,700만원 올 내년도에는 32억 2,500만원으로 약 10억 원이 증가되었고 2018년 이후에는 27억 규모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시설비는 작년도에는 108.3억 올해는 94억 4,500만 원해서 2019년도까지 87억 6,500만 원 선까지 내려갔다가 2020년도에는 45억 8,200만원으로 될 전망입니다. 2019년도까지는 산학기술창조관과 국제교류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 확대로 수입금이 크게 되겠습니다. 자체수입금으로는 등록금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산단회계 4% 증가하고 발전기금은 현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걸로 해서 전체 총 예산액은 원래가 1,087억 5,000만 원에서 2019년도까지는 이 규모로 유지될 전망이며 2020년 이후에는 1,054억 규모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22쪽입니다. 지출여건입니다. 강사료 등 국고인건비부족분발생과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출규모확대 등 지출요인증가로 인한 사업성경비의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국책

사업유치 시 각종 대응자금요구로 대학재정건전성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변에 우리 대학재정지출전망입니다. 국가지원금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다소 안정적이나 사업성 지원경비는 지원규모에 불확실성으로 현재 수준에 유지될 전망입니다. 캠퍼스 관리운영 교육환경개선 등 고정경비지출 건확대될 전망입니다. 기본경비 시설비 등은 국가지원금으로 전액 충당되지 않아 자체수입금으로 일부 대체될 전망입니다. 대학자체수입 감소에 따라 사업성경비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경직성경비 증가 및 수입 감소에 따른 사업성경비가 감소되고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지출수요에도 사업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3쪽입니다. 연도별 대학회계 지출전망을 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익금은 경직성경비, 준경직성경비, 기타운영경비 증가됨에 따라 사업성경비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입니다. 마번 재정규모전망입니다. 대학회계는 등록금수입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며 산학협력단회계 및 발전기금회계전입규모에 따라 대학재정운용여건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회계별 연도별 재정규모 전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 재정운용계획입니다. 기본방향 및 목표입니다. 대학발전계획에 따른 중점투자분야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시스템구축과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계획 중기재정운용계획 대학회계예산편성기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사업예산규모를 확립하고 대내외평가사업 주요정책과 연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확대를 통한 재정지출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운영비 감액 등 긴축재정을 실시하여 예산절감확대 및 예산집행과정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목표입니다. 예산편성의 합리적 절차와 집행의 투명성, 예결산내용공시를 통한 구성원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적극적 유치와 지방자치의 지원금확대 및 기술이전에 의한 다양한 수익창출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금 모금활성화, 수입대체사업운영 내실화 등을 통한 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배정 집행 성과측정 다음 연도 예산배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분야별 단계별 재정운용계획은 세부중장

기발전계획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예측하여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특성화육성 창의교육중심대학 산학연관 R&D 중심대학 취업 창업 중심대학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 해서 5개와 기본경비해서 6개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분야별 세부추진내용 및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특성화분야입니다. 28쪽입니다. 투자계획입니다. 5년간 전체예산의 2.9%인 155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특성화분야를 중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연도에는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창조 ICT융합인재양성사업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하여 당해연도 특성화분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교육중심대학입니다. 투자계획입니다. 5년간 전체 예산의 18.4%인 99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창의교육중심대학을 육성하여 공학교육혁신모델발굴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기숙대학운영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교육 연구 학생지도비 사업 장학금지원 및 내실있는 학생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연관 R&D 대학입니다. 29쪽입니다. 5년간 전체예산의 20.2%인 1,088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R&BD 실용화연구를 통한 실용적 산학협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정부재정지원사업 LINC, BK21플러스 컨설팅대학원 R&D 사업 수행과 대학자체지원 대학원활성화 장학금 지속지원과 kit융합기술원운영 등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창업 학업 중심대학입니다. 투자계획입니다. 5년간 전체예산의 1.5%인 79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학생역량진단 관리체계구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학생역량개발프로그램 안정화와 운영 정착, LINK+ 사업의 취업과 창업분야지원 확대를 통한 학생의 3UP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입니다. 5년간 전체예산의 5.5%인 294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대학시설인프라 확대와 지역사회교류확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영덕수련원 운영, 산학기술창조관 완공, 국제공학관 신축 등 대학의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평생교육원과 과학영재교육원 등의 운영과 시설개방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외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투자입니다. 국책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사업, 유관기관 등과의 외부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대학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33쪽 수입과 수요추계 총괄, 34쪽 수입추계, 35쪽 수요성질별 추계, 36

쪽 수요사업별 추계 등은 교육부 작년 서식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수요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투자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정책과제사업지원을 통한 대학의 전략적 예산 투자로 대학의 운영방향제시 및 성과창출로 대학경쟁력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정책과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정책사업별 세부 투자금액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시 조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사업선정배경입니다. 대학의 정체성과 교육이념 대학구성원의 핵심역량강화 대학의 교육환경개선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을 대학회계 예산으로 한 개나 두 개 정도 선정했습니다. 대학의 정체성과 교육이념달성을 위한 대학의 전사적인 운영비용입니다. 대학교육이념추구사업으로 RC교육운영사업 학생역량계발사업비입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는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입니다. 대학교육운영공유로는 대학홍보사업입니다.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의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교수사업으로는 연구지원사업, 학생사업으로는 국제교류학생활동지원사업 대학원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직원사업으로는 직원역량강화사업입니다. 대학의 시설확충과 인프라구축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확충사업으로는 산학기술창조관 신축, 국제공학교육관 신축, 강의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자료확충사업으로는 도서확충사업입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시설사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평가입니다. 신규시설사업으로는 국제공학교육관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설계비로 5억 2,600만원, 2018년도에는 50억, 2019년도에는 55억 5,300만원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시설환경개선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시설사업실적평가 2017년도 시설사업계획평가 시설사업 중장기투계획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분석을 통한 집행효율성제고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절감 및 수입증대를 통한 재정위기극복노력입니다. 대학재정여건의 지속적인 악화에 따른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중기재정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세입증대 및 세출절감방안의 구체적인 마련을 통한 재정위기극복마련을 위하여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건정성강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전략방향으로는 세 가지 방향입니다. 세출절감방안으로 조직개편향한 직원감축 및 업

무프로에서개선 시설장비유지용역개선 강의시스템개선을 통한 강사료절감 소모성예산유보액설정으로 낭비최소화 물품 및 에너지절약강화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공공요금절감 행사경비집행효율화 등 7개 방안입니다. 수익증대방안입니다. 발전기금수익증대 산학협력수익증대 생활협동조합수익증대 국유재산 사용료수익확대 등 4개의 방안입니다. 기타방안으로 국립에 정부재정지원확대요구 국책사업선정노력 국책사업예산공동활용 수입대체부서 수입증대 등 4개의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원래 9월 시안을 발표해서 각 부서별로 절감방안을 마련해서 일부는 이번에 재정중기투자계획에 반영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향후 관리 및 방안입니다. 재정상황에 대한 구성원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통해서 인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대학회계세입세출 예산편성 시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관련방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편성에 노력하고 내년도에도 재정절감방안이 더 구체적으로 시행되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단년도 예산과 연계전략입니다. 대학종합발전계획과 부합하는 5개년 단위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하여 대학종합발전계획과 부합하는 단위사업을 선정하고 단위사업별 성과가 연계된 중기성과지표를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단위사업추진시 연도별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매년 사업실적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한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재정지원사업과 대학회계단위사업 간 유사 중복사업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재정지원사업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단위사업운영의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는 교육부 작년서식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 위원님.

○ **구정호 위원** 뭐 항상 들었던 사항들 중에 하나가 반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이리이러한 부분

이 부족했다 해서 항상 이렇게 반성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준비하시면서 우리 학교에 이리이러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었다 여전히 해서 이제 제일 첫 장에, 거의 첫 장에 거의 반성측면 해가지고 이제 일목요연하게 잘 열거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정책팀장 강태구** 예. 오늘 재정위원회 심의 끝나고 확정이 되면 학내 공지를 하고 후속조치로 그 예산편성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서 공문을 보내서 이제 구성원들한테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일단 사업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12월 중으로 성과평가를 나름대로 저희 사무국 관점과 기획협력처 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계획을 기획협력처에서 중간보고를 내년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 5일하고 7일 날 하고 있고 그때 저희 재무과도 같이 계속해서 같이 피드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하고 저희 사무국 관점에 성과평가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기획협력처 관점에 평가별 종합해서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호 위원** 과거에는 이런 성과평가가 없었나요? 매년 하던 거를 그냥 그대로 하시는 거 일 거 같아서 여쭙보는 겁니다.

○ **재정정책팀장 강태구**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희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피드백 같은 거 중장기발전계획서 수립하고 그럼 그 수립이 이제 앞으로 부족액이라든지 이런데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고 뭐 그러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성과평가하고 뒤에 피드백이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는지 그 개선사항을 다음에 조정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 뒷단이 안 된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아예 이번에 구조개혁 할 때는 그 프로세스에 성과관리평가 이렇게 사업비 계획수립하고 나서 평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조치했느냐 이것까지 보겠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그런 평가를 통해서라도 굉장히 강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대로 오늘 또 좋은 의견들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 찾아내서 볼 수 있었고 우리 학생과장님이 말씀이 애

기하신 것처럼 부서별로도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나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었는지 이런 거를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철두철미하게 따져가지고 지금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절감방안을 만들었지만 부서별로도 절감방안을 또 수입증대 방안만 저희가 마련했었는데 부서별로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나간다면 그러면 개선되지 않을까 되고요. 근데 절감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꼭 써야 될 부분에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 **구정호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기 본경비에서 올해 총장님이 아마 10억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연도별수입 전망에 총장님이 받아오신 10억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약 32억 그래서 이게 그대로 그다음 지출 받아온 만큼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32억 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걸 1회성으로 진짜 올해 한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것처럼 일단 보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5억으로 이 금액이 절감 되서 쭉 되는데 매년 이렇게 가서 받아와야 되는 이렇게 총장님이 아주 정말 열심히 하셔서 받아온 돈이라며 크게 많이 어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사항인 건지 아니면 이제 가서 계속해서 열심히 잘 받아들 수 있는 돈인데 그런 건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배효근** 예, 재무과장 배효근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가 교육부에 이제 국가 일반회계 기본경비가 전체 한 국립대학의 1,4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대학이 매년 한 22억에서 25억 정도 이렇게 배정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총장님이, 총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력해서 10억을 더 받아왔는데 올해만 특별하게 배정해 준 것이지 내년에 이 금액이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00억 원 그것이 파이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날지 몰라도 크게 늘어나지 않은 한은 우리 대학이 이 금액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한마디로 기본배정에서 더 없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감소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추계를 이렇게 계산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또 노력을 하면 그건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 **이승희 위원** 맞습니다. 총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했지만 정말 내년에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하는

데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 기획처장 협의회에서 어떤 거를 또 제안했냐면요. 이제 전국 국책사업을 따와도 어떤 때는 또 사업비에다가 학교 대응자금 해가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 좋았던 것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ACE 같은 경우에 대학여건 개선을 위해서 한 20%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좀 대학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반영해 달라 했더니 이번에는 링크+ 사업에는 한 15% 정도는 대학회계에서 쓸 수 있게 바꿨습니다. 다만 바꾸도록 노력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직성 경비가 국립대는 국가가 만들어 낸 대학인데 최소한 경직성 경비는 바로 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는 법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대학 부담시키게 되면 그러면 그거를 전액부담 해 달라 그것도 부담이 되면 단계별이라도 그거를 좀 폭을 줄여달라. 대학 부담을 그 두 가지를 좀 우선 대학회계 발동에 불이 떨어져서 숨을 못 쉬고 있을 정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국책사업비는 그렇게 대학여건에 맞게끔 규율을 각종사업에다가 시정을 하더라도요. 그런데 경직성경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는데 뭐 알겠다.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등록금 인상부분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제 사립이 문제지. 반값 등록금 국립대는 문제없지 않느냐. 그래서 뭐 정 뭐하면 국립대 중에서라도 평균이하의 조건 받는 그런 대학들은 정말 어렵다. 여기만이라도 인상해 달라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부총리가 수고를 했는데 이제 당연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학부모님이나 사회에서는 이제 사립대 수가 많다보니까 이제 국립대의 어려움의 잘 모르시고 무슨 또 인상을 하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기재부에서는 난감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러 얘기를 하더라도요. 단기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OECD 국가에 고등교육 예산이 1.2%인데 평균이에요. 우리나라 0.8%예요. 거의 바닥이에요. 그 차이만 해도 부족분인데 그거를 단계로 올려달라고 했고 그 고등교육 예산은 국립대 예산은 총액 2조 5,000억 밖에 안 돼요. 그거는 꼭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국립대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요. 국립대학설치령에 법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올려 달라. 이렇게 단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총장 협의회에서 연결해서 그런 부분이 풀린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학교에서 자구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사실 더 큼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그 노력을 해야 할 거는 이제 저희만 노력해서 안 되고 전국교수연합회에서 같이 노력을 해줘야 해서 그 부분을 손을 잡고 있고요. 그런데 자구노력부분은 결국은 이제 경직성경비 부서별로 줄여주고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사업을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줄이는 교육연구가 학생연구가 안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구정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 보겠는데요. 국가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여기에 간접비 고시율이 25.2%로 증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국가사업의 간접비 관련 모든 국가사업은 뭐 간접비를 25.2%를 이렇게 다 차감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는 예를 들어서 미창부의 과제만 25.2%가 되고 또 교육부에 가서는 안 되고 뭐 이리이러한 구조인지 실제로 25.2% 간접비로 산단에서 뛰게 되면 이거는 대학회계로 전입해서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돈인지 궁금합니다.

○ **이승희 위원** 그 부분요. 이제 제가 전에 산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산학협력단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재정을 산학협력단에서 간접경비에서 전출해서 쓰라는 목적으로 만들어 줬는데 이제 그것을 전출하는 걸 이렇게 유연하게 확대시켜 주지 않으면 등록금도 동결시키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해 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은 노력은 하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너무 올라갔을 때 아마 상한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간접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실제 연구과제 수행하는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사업에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뛰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별로 달라요. 중기청 같은 경우에는 간접경비를 또 못 떼게 해버려요. 막 5% 굉장히 낮게 떼요. 그래서 또 면제되는 부서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 산하기관에 간접비를 못 떼게 면제하는 것을 풀어 달라. 이를 항의하면 이를 간접 연구관리 따면 당연히 해 주니까 돈을 받아야 하는데 왜 못 받게 하느냐 그래서 면제조항 하는 것을 없애자. 그리고 이제 그것도 다른 25.5%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부처별로 달라요. 그거를 좀 다 올릴 수 있게 해

달라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말씀대로 한 가지는 너무 올렸을 경우에는 사업의 문제성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제동을 걸고 어떤 때에는 뭐 못 뜨게 자꾸 하는 그런 부서가 그런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싸우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런 사항이란 말씀은.

○ **구정호 위원** 그러면 재원이 어쨌든 들어왔을 때 대학회계로 돈이 들어 올 수 있다는 건가요?

○ **이승희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그건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틀이라고 생각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4쪽에 기본 재정운용계획에 기본방향과 26쪽에 자원배분방향계획이 합당한 지를 있어요. 논의를 해서. 점심시간 늦어버렸으니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 그다음에 26쪽 분야별 지원배분계획. 큰 두 개의 틀만 확정되면 나머지는 전체 부서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희 위원** 이 대체적으로 품이 정부에서 준 품이거든요? 거기다가 타 대학들도 이렇게 쓴 걸 저희가 참고를 많이 해서 비슷하게 돼있더라고요.

○ **위원장 채창현** 예, 정 위원님.

○ **정연구 위원** 예, 금오공대 재정위원회 운영규정 10조에 보면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내용이 쪽 10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전년도 재정운영 중기계획에 대한 평가 및 이것을 이제 개선해서 현재 연도에 재정운영계획을 반영하라는 것도 8항에 보면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작년도 중기재정운영계획이 통과됐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년도 재정운영중기계획에 대한 평가 및 반영 그런 부분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기존에 작성된 재정중기재정운영계획에는 잘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앞으로 5개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사업 또는 증액사업, 증액사업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재정정책팀장 강태구** 예, 사무국 강태구입니다. 전년도 10조 3항 제7호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15쪽에 재정운영성과와 반성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기술을 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 **이승희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중장기계획 발전계획서를 만들면서 그 성과평가 이 부분이 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를 두었습니다. 계획수립하는 파트, 진행점검 하는 파트,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평가관련파트를 그 평가관리는 외부평가위원회 왜냐하면 내부에서 그냥 서로 알아서 하니까요. 외부평가를 반영시켜서 그 분과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사실 저희가 실적으로도 두쪽의 평가를 위해서 실적도 내야 합니다. 아마 그게 확정이 되면 그 마지막에 자체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저희는 생각에는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나 전년도 평가는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받아보고 거기 중장기발전계획서에서 평가, 자체평가 할 때 이 부분도 저희가 전년도 하고 대비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마지막 단계가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못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김영학 교수님이 구조개선평가 평가위원회를 가서 보니까 다른데 잘 된데 보니까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전년도에 뭐가 문제점이 있었으니 이거를 개선해라.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아예 제도적으로 담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 많이 이런 부분들이 잡혀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대로 2가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 **구정호 위원** 예를 들어서 뭐 R&D 했을 때는 사업화를 몇 %가 몇 건다. 이거를 돈을 이만큼 썼으니 사업화를 몇 건을 하겠다. 아니면 얼마 금액적으로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렇게 넣었는데 실제 올해 했더니 얼마다. 목표대비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목표대비 잘 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아까 제가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여쭙봤던 게 그런 구체적인 지표사항들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문구들을 다 어떻게 돼있어요? 다 정상적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잘했나 못했나. 그냥 못했나 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실제.

○ **이승희 위원** 예, 총장님들이 이렇게 취임하면서 되게 4개년 계획해서 매년 4개년 계획에 대한 연차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걸 총장님들이 자기 공

약에 대한 그런 평가였지. 이런 우리가 가야할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사업비를 예산을 잘 썼느냐 이 평가는 그동안 제대로 안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렇게 체계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춘월 위원** 예, 신춘월입니다. 재정에도 중장기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학교 전반적으로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그 대외평가에 점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5년에 한번 꼭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정책연구를 줘서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몇 년도에 중장기계획이 최종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승희 위원** 이제 보통 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지금 현재 2025년도까지 향후 10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총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부임을 하시게 되면 또 그분의 공약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서를 다시 그다음 해에 10년을 또 수립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기간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이런 국가사업에 변화라든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수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비전 2025 중장기발전계획서도 지금 몇 번 바뀌어서 수정이 돼있고 보완조치를 하고 또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음 또 10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근데 지금은 총장선거 마지막 하고 있는 단계라서 마지막 회의잖아요. 현재 총장님 부임해서. 아마 다음 총장님은 저희가 25년까지 만들어 냈기 때문에 비전 2030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시작해서 10여년 정도 되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 **신춘월 위원** 근데 10년씩 이러면 뭐 10년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는지. 10년이라고 보통 보면 기관들이 5년 단위로 하거든요. 하도 많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 **이승희 위원** 아, 계획서는 그렇게 하되 그 안에는 5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비전 제시는 10년 정도 제시해야 하니까. 5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 **신춘월 위원** 예. 여기 보면 그 재정에 환류라든가 반성이라든가 어느 위원회나 이런 거는 기본적인 틀로 프레임을 갖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내부구성원이 나름 학교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운영이 되는 그런 장

점은 있지만 안에서만 했기 때문에 바깥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비교하는 게 우리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알지만 나머지 구성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뭐 재정도 마찬가지로 그 기획업무에서도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각종 계획에 우리가 수요자나 정책수요자측면에서 그 다양한 구성원들 그 외부위원들을 좀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쟁기질을 이렇게 많이 좀 해서 갈아엎어서 다른 새로운 그 변화를 우리가 못 본 다른 거를 이렇게 좀 자극을 받아서 학교가 좀 역동적으로 좀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승희 위원** 좋은 말씀 반영을 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전에도 했지만 컨설팅을 준적도 있고요. 바로 직전에는 얼마 전에 보직자 분들 보셨지만 저희 대학과 경쟁이 될 수 있는 30개 대학과 저희가 비교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경북대학과 영남대를 항목별로 다 비교해서 순위까지 다 평가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네, 네.

○ **정연구 위원** 그 회의자료 34쪽이에요. 보시면 수입추계가 있습니다. 수입추계가 있는 데요 그 수입추계 중에 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이렇게 해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사무국에서 지난 9월인가요? 언제 배포했던 자료에는 이 부분이 향후 5년간 쪽 다 0이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2018년도에 광역자치단체가 4억 5,000, 1억, 1억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보면 2018년도에는 4억 5,000인데 그다음에 1억 이렇게 되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구정호 위원** 단위는 억이예요?

○ **재정정책팀장 강태구** 예, 단위는 백만 원입니다.

예, 사무국 강태구입니다. 그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 2억 기초자치단체에 2억, 2억 5,000, 4억 5,000은 그 구미시에서 2억하고 산학기술창조관 건립비용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4억 5,000 그걸 또 구미시에 또 2억 5,000 해서 7억이고 그 6억에 대한 것도 더 뭐 계속 노력해서 추가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희 위원** 이거는 산학기술창조관 지원사업

비로 지원이 시장을 통해서 했던 거고요. 이제 전에는 0이었다가 이렇게 된 게 그 최근에 그 지방대 육성법이 특별법입니다. 이게 그 만들어졌는데 제정됐는데 이제 과거에는 지자체 법에 의하면 이제 그 지방에서 쓰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 이렇게 대학이나 이런 연구소 이런데서 지자체 부담을 해주지 마라. 왜냐하면 어려운데 자꾸 요구하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대학 특별법 육성법 외에는 이게 상위법이라서 특별법이라서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학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대학에도 이제 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거기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대학을 위해서, 지역인재양성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가지고 그런 법제도적으로 열려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계속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방자치단체한테 압박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지방자치제 평가할 때 지역대학이나 이런 데 지원을 했는가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 **위원장 채창현** 저도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24쪽에 보면 우리 대학에 기본 재정운영에 기본방향이 발전계획에 따른 중점투자분야 그 밑에 보면 지속가능한 대학경쟁력 기반강화 그 밑에 밑에 보면 학생교육경비에 우선투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방향을 제대로 기본방향은 제대로 잡은 거로 파악이 되는데 26쪽에 예산배분에서 보면 우리 대학이 산학연관 R&D 중심대학인지 학업중심대학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 대학교가 그나마 유지되는 게 취업률이 높아서 우리 대학에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1.5%, 지금 현재는 1.3%고 내년엔 0.1%, 1.4% 밖에 안 되고 산학연관 R&D중심대학에는 약 20.3%, 19% 해가지고 20%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방향이 R&D로 갈 건지 아니면 이 학생을 잘 가르친다. 학업과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 갈 건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승희 위원** 여기에는 LINC 사업비나 ACE, CK 사업이 빠져있어서 그러는데 그 예산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예산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정부예산이라서 저희가 이걸로 보면 미비한 걸로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전체예산을 통합했을 때

는 이 부분도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 **위원장 채창현** 이 부분이라는 게 취업 학업..
○ **이재원 위원** 취업 창업 학업 이 부분은 LINC 사업비하고 이제 CK 사업비, ACE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정부사업에서 그때 토론회 때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기여도를 이렇게 LINC 사업비에서 이런 쪽에 창업 취업 많이..

○ **위원장 채창현** 그런데 어떻게 보면 LINC 사업비는 그 다시 산학회계중심대학으로 우리 예산을 볼 수도 있고 밑에 건으로 볼 수도 있고 ..

○ **이재원 위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정말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이 취업 창업 학업 분야에 예산이 들어가야겠죠.

○ **위원장 채창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취업이. 난 그렇게 봐요. 한 가지 더 이제 한 시대가 저물어 가는데 아직도 창의교육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이제 좋은 단어인지 하는 것도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간사 배효근** 제가 한번.

○ **위원장 채창현** 예, 말씀하십시오.

○ **간사 배효근** 예. 삼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실제 우리가 참고로 한번 4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밑에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용역비가 14억 정도 그다음에 경비 무인경비에서 이 건물 지키는데 들어가는 돈이 연간 5억 3,000 정도 됩니다. 시설관리비가 1억 7,000 그렇다 보니까 실제 우리 식구가 한 8,0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청소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7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학교에 기본운영경비가 보통 한 22억 정도 본다면 거의 그 건물 지키고 청소하는데 대부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듯 이 경비절약이라고 하면 기본경비절약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다들 우리 식구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만 재정절감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삼자적인 금오공대는 출발할 때는 정말 대단한 대학이었습니다. 저도 외부에서 그런 쪽으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포항공대나 서울공대 그다음에 인하공대 등 유사한 공대들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급격하게 국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와 관련된 말씀이 많이 하셨습니다만 국제화는 생각보다 우리 국민들이 인지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 국가

간에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외국에 가서 뭐 강의를 해보고 했지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 비교를 하면 지구가 태양주위를 도는 1시간에 1,600km를 달립니다. 그런데 강도가 5.0 정도 되는 지진을 우리 경험하면 큰일 났다고 봅니다. 1,600km로 우주를 달려가는데 1시간에. 이런 우리가 지구에 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가 약간 흔들려도 우리는 이게 큰 지진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세계변화에 이렇게 동반해서 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 금오공대가 이제 이런 재정계획을 중장기를 세울 때에는 우선은 방위산업개선에 특별한 학교다. 뭐 이런 쪽으로 학과를 신설하거나 육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공학도를 육성하는 유일이 우선 학교다. 뭐 그렇게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그러니까 전문대 수준이 아닌 고급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특별한 학교다. 뭐 이렇게 이 특화를 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저는 이제 천문학에 관심이 큼니다만 우리 과학발전이 이루어낸 것 중에 하나는 시속 100km 달리면 4억 년 걸려서 궤에 있는 태양이 또 하나 발견됐고 그다음에 34억년 걸려서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태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우주 채우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흔한 물질이 수성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지구가 소비하는 산소의 6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범위하고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과학대학인 우리 대학이 인지를 못하면 상당히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인간들이 우주의 극히 일부에 살면서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종교관이든 자기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든 상관없이 근데 저는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야 우리 인간이 많이 우매하구나.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발전을 위한 금오공대는 제가 보기에는 수십년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로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고를 줄이고 정부에서는 사립과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특화할 쪽에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걸을 위해서는 지금 이제 한 이삼억 정도를 들이더라도 외부에서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금오공대에 대한 전체적인 학과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짚어볼 때가 됐다. 근데 우리 교육부는 그렇게 합니다. 생각보다 자주. 전체적으로 외부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한 십 몇 억씩 투입을 해서라도 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걸 고쳐야 되고 또 갈아치워야 할지 이것을 봅니다. 그때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 한번은 총체적인 평가를 받아서

학과 통폐합이나 신설 그다음에 학교운영에 대한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 지금 재정운영계획은 상당히 잘 수립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의외로 재무과가 이 소규모의 과에서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객관적인 외부평가를 통해서 이게 재정운영계획에 제대로 한번 반영이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듭니다.

○ **위원장 채창현** 기타의견이 없으시면.

○ **위원일동** 없습니다.

○ **위원장 채창현** 오늘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을 하실 때 보다 오늘 나와 주신 개진해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을 해서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2호 안건인 중기재정운영계획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전원찬성에 의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법률에 의하면 회의록이 2개 이상인 경우 간서인 3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처장님, 정연구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세 분을 간서인으로 수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건이나 의견사항이 없으므로 제6회 재정위원회임시회 회의를 종료하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학교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 **출석 위원(10인)**

채 창 현 이 승 희 이 재 원 방 대 석
박 병 태 신 춘 월 정 연 구 구 정 호
이 정 희 홍 순 달

[보고사항]

○ **간사 선임**

부서명	직책	성명	연월일
사무국	재무과장	배효근	2016.11.29.